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다큐’의 본질”



“지금은 동구 산수동에 작업실을 두고 광주 곳곳을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차기작은 급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진정 무엇을 창작하고 싶은지 먼저 잘 정의하고 싶을 뿐이죠. 지역적으로는 전라도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나의 영욕(靈肉)을 성장시킨 곳이 바로 이곳, 남도이기 때문이죠.”

흔히 독립영화-다큐는 누적 관객 2만이면 ‘성공’, 10만이면 1000만 상업영화에 필적하는 ‘대성공’이라는 말이 있다. 진모영 감독의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남아’)는 일찍이 멀티플렉스 영화들을 제치고 480만 관객을 돌파했으니 전무후무 대기록을 쓴 셈이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스틸컷
▲최근 광주 동구 미로센터에서 만난 진모영 감독. 그는 오는 9월까지 미로센터 2층 미로가든에서 펼쳐지고 있는 ‘씨네196’이라는 행사에 프로그래머로 참여하고 있다.

진 감독은 “차기작 관객 수에 대한 부담은 이미 전작 ‘올드마린보이’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남아...’ 등에서 내려놓았다”는 말로 운을 뚫었다. ‘남아...’ 같은 성공이 일생에 두 번 돌아오기 힘들뿐더러 흥행도 좋지만 진정성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다큐의 본질’이라는 생각에서다.

오는 9월까지 동구 미로센터 2층 미로가든에서 진행되는 ‘씨네196’ 행사에 프로그래머로 참여 중인 진 감독을 지난 5일 만났다. 이날은 영화 ‘안녕, 미누’를 상영한 뒤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그의 “삶과 영화철학, 비하인드 스토리 등에 대해 전에 없던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제안에서 다큐 감독의 진중한 면모가 느껴졌다.

진 감독은 “요즘 웹툰이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화려한 이미지 끝에 오는 허탈감이 있다”며 “틀리세나 영화적 컨벤션이 달하다는 측면에서 다큐야말로 현실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장르인 것 같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좋은 다큐’란 현실을 그대로 탁본하는 시뮬라크르(simulacre-복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실이라는 질료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작품이야말로 ‘주작’이라는 것이 지론이다.

영화 ‘남아’ 촬영 중 언론에서 밝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는지 물었다.

진 감독은 “영화를 보면 할아버지가 밤나무 아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할머니와 함께 나무 아래 평상에서 주무시는 씬이 있다”며 “할아버지가 일흔

‘남아, 그 강을...’ 진모영 감독
9월까지 광주 머물며 창작 행보
동구 미로센터 ‘씨네196’ 참여
지난달 5·18 추모 퍼포먼스 눈길

쯤에 심은 그 나무를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 열매 보고 가려고 나무를 심느냐’고 했다”고 한다. 이어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데 할머니께서 냉장고에서 검은 봉지 하나를 꺼내 주셨다”며 “뭔지 확인해 보니 껌질을 깠 생밤 한 봉지였다”고 한다.

진 감독은 내일 지구가 망해도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던 말이 떠올랐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생밤 한 봉지가 잔잔한 감동으로 남았다는 후문이다.

할머니가 촬영 당시 영상에 대해 함께 고민해 줬던 경험도 들려왔다. 할머니는 내일 밭을 갈 수도 있지만 제작진이 오는 날에 맞춰서 일구는 등 제작진을 손주처럼 살뜰히 챙겼다고 한다. “선상남”들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공탕을 치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라며 제작진을 배려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남아’가 10여 년 전 작품이지만 진 감독은 아직도 강계열 할머니와 1년에 3-4회씩은 만난다. 최근에는 백수연 행사에도 참여했다.

진 감독은 “촬영이 끝나도 출연자는 이미 ‘내 삶

에 들어온 사람’이기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며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 감독의 최근 광주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7일 민주광장 일원에서 5·18민중항쟁을 추모하는 ‘5·27 승리의 날 새벽광장’ 퍼포먼스를 제안하고 펼쳤던 것.

산이중(전남), 광주 문성고,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학생시절에는 학생운동도 했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바빠 생활하며 ‘광주 정신’을 깊게 생각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했다.

행사는 5·18민중항쟁이 끝나는 27일에 맞춰 26일 밤10시부터 27일 새벽 6시까지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추모와 승리의 의미를 가진 음악 미술 춤 등의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이상호 작가의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에서 모티브를 얻어 ‘14열사도’를 제작했고 주홍, 박성환, 김희선, 고경일 등의 미술작가와 오월의노래 음악인들이 다수 동참했다. 새벽 4시가 되면 다 같이 쓰러진 뒤 부활의 춤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몸짓을 선보였다.

진 감독은 “당시 광주는 ‘죽음’이 가득했던 도시지만, 그걸 넘어서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승리’를 쟁취했다”며 “시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미로센터에서는 7월 4일 ‘씨네196’에서는 ‘바라다가 사랑한 얼굴들’, 8월 1일 ‘위대한 작은 농장’, 9월 5일에는 ‘아담’ 등 총 5개의 독립-예술영화 상영될 예정이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

인간·자연·문명의 관계를 탐색하다

허진 초대전, 7월7일까지 파주 헤이리 갤러리 이레

‘장자’의 ‘제물’ 편에는 ‘추호지말(秋毫之末)’이라는 말이 나온다. ‘가을 짐승의 털끝’이 지나는 의미를 은유한 것으로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으며 큰 것도 작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삶의 다양한 이면, 특히 보이는 것 너머의 이면을 인문학적으로 비유한 말이다.

허진 작가(전남대 교수)가 ‘가을 짐승의 털끝’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오는 7월 7일까지 파주 헤이리 갤러리 이레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추호지말’과 연계된 인간, 자연, 문명의 관계를 탐색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허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자신의 작품세계와 여러 필자의 글쓰기를 연계한 아트북 ‘Hurzine’ (시진)도 발간했다. 허진의 ‘허’ (Hur)와 매거진 (magazine)을 결합한 아트북은 편집자 이근정이 기획했다. 미술작가와 편집자, 디자이너의 3인 협업으로 독창적인 결실을 이뤘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허 작가는 “기존의 화집 또는 도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제작된 아트북은 이색적인 스타일로 담론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편형 또한 평소에도 보던

것과 다르며, 편집의 방향을 비롯해 체제, 디자인 등도 독창적”이라고 했다.

이번 전시는 허 작가가 이전부터 선보여온 ‘유목동물-인간-문명’ 시리즈와 연계돼 있다. 야생동물과 인간, 인공물의 이미지를 한데 결합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면을 감각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보여준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예전에 작업했던 ‘현대산수도’도 볼 수 있다. 화면에 거대한 산이 여러 개 수묵으로 표현돼 있고, 그 주위를 작은 채색화로 구현한 것이다.

‘유목동물+인간-문명 2022-13’은 한지에 수묵채색 및 아크릴로 형상화했다. 환상적이면서도 기이한 화풍은 허 작가의 작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간과 동물, 또는 구획을 넘어선 초월적 세계는 작가 내면에 드러워진 순수한 이상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 이근정 편집자는 “‘동물’ 시리즈를 보면서 신체



‘유목동물+인간-문명 2022-13’

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 바로 ‘바닥’이 없다는 점”이라며 “아이들을 침대에 눕혀 놓고 천장에 투사해 보여주는 환등극이 연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작가는 지금까지 600여 개 그룹의 기획 초대전에 참여했으며 34회 개인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제1회 한국일보 천년작가 우수상, 제19회 허백련미술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돌움무용단이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펼치는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 무등풍류 연
15일 전통문화관 일원

공연전래문화, 전통무용 공연 등으로 채워지는 전통예술 행사!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무등풍류 연 6월 행사를 ‘수릿날, 하늘엔 꽃구름이 가득’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펼친다.

수릿날은 단오의 옛 표현으로, 단오절을 기념해 전통문화예술 공연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오후 1시 입장당에서는 ‘돌아온 이야기꾼 시즌2’가 진행된다. 동화 ‘까마나라 불개’를 구연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단오부채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선착순 40명 무료, 전화로 사전접수).

오후 3시(서석당)에는 ‘자연을 품은 춤, 율림’이라는 주제로 돌움무용단이 전통의 신명을 선사한다.

돌움무용단은 2002년 광주여대 박선옥(무

용학과) 교수가 제자들과 창단했으며, 민속춤의 연결 동작인 ‘돌움춤’에서 그 이름을 본땀다.

한예중 유사원 겸임교수,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 박정은 연구원을 비롯해 목포·장원·청주 시립무용단 상임 무용수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잡’이라는 공간을 자연, 우주로 확장해 더불어 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전통춤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궁궐 숲 이야기를 담은 ‘춘앵무’를 비롯해 한영숙·박재희류 ‘태평무’, 남중숙무 ‘살풀이춤’ (이매방류)와 황무봉·김매자류 ‘전영’ 등을 선보인다. 이매방류 ‘사풍정감’과 ‘뽕을 담.新 강강술래’ 등도 프로그램에 있다.

전통문화팀 송현민은 “이번 공연을 비롯해 오는 22일에는 상설체험 및 전통문화제 초청공연 일환으로 제1호 남도판소리 예능보유자 이순자 선생이 전통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며 “전통문화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변화’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인포그래픽스 제25호 발행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최근 ‘광주지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변화’라는 주제로 젠더인포그래픽스 제25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는 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광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0년 제16대(첫 여성 국회의원 탄생) 이후 22대까지 20여 년 동안 광주는 여성 당선인 수 1명(12.5%·2004, 2008년 제외)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선 1기(1995년)부터 8기(2022년)까지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당선인 비율은 0%였으며 7대 특광역시 역시 동일한 비율을 보

였다.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자 총수는 민선 1기부터 8기(1995-2022년)까지 단 3명에 불과했다. 광주 22대 국회의원의 여성 후보자 총수는 6명으로 21대보다 단 1명 늘었다.

이에 비해 시·구의회의원 여성 후보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시·구의회의원 여성 후보자 비율은 2002년 전체 후보자 60명 중 4명(6.7%), 2022년 32명 중 11명(34.4%)으로 늘었다. 당선인 수 또한 같은 기간 16명 중 2명(12.5%)에서 20명 중 8명(40.0%)으로 증가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